

가나안 정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 왔다(1절). 이때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결론적인 언약을 전달한다. **여호수아서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이다.**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. 광야에서 많은 갈등, 문제, 실패를 통과시키면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훈련시킨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.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차세대 지도자와 그와 함께 한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난 것이다. **여기서 다시 질문을 해야 한다.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었을까?**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셔서 그들과 그 후손들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인가? 현실적으로는 맞다. 여기에 머무르면 많은 오해가 온다.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,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신가?

1. 여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영원한 계획 세가지를 찾아내야 한다.

1)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을 살리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이다.

①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나안에 보내면서 주신 언약이다.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다.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(창12:1-3, 22:18).

② 그 후손은 단순한 이삭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,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라고 했다(갈3:16).

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땅을 잃어버린 것이고,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킨 것이다.

2)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, 이 시대의 우리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.

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,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,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은 것이다(마1장의 족보)

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고,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(엡1:3-5)

②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이고,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(엡1:6)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(고전15:10).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보장받은 것이다(엡2:13)

3)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이 있다.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다.

① 먼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모으신다.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다(엡2:19)

②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, 만주의 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이다(계17:14).

③ 내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.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(롬14:17)

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상과 인생을 심판한 이후에 세워진다(계21:5).

그렇게도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.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, 타락한 인생의 모델이다.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(요5:22),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(눅12:56, 엡5:16)

2.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?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남은 전쟁을 끝내라는 것이다. 그것이 본문이다.

1) 먼저는 세상 정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이다.

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다고 했다(3절)

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고,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운 분이라는 것이다.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먼저 일이 이것이다.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.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?

유대 땅을 다니면서 흑암에 묶인 자들을 건져내고, 치유하고, 그 흑암의 권세를 꺾으신 것이다(마12:28)

②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도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(5절)

내 욕심과 야망을 위한 정복이 아니다. 예수님은 그런 정복을 위한 권력, 전쟁을 가르치지 않으셨다(마26:53) 스스로 죽으셔서 모든 인생을 대속하시고,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. 참된 정복을 하신 것이다.

③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축복해야만 했던 이유도 이것이다. 증인으로 서라는 것이다.

너를 대적하기 위해 온 원수가 있다면 한 길로 왔다가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라고 했다(신28:7)

그러면서 네 창고와 네 땅이 복을 받고,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(신28:8)

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똑같은 언약을 주신 것이다. “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”(행1:8)

2)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끝까지 싸우라는 것이다.

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,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?

① 먼저 힘을 다해 말씀을 붙잡고,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(6절)

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, 불신앙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다. 상처 투성이인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.

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한다. 그래서 3오늘이 중요하고, 매일의 묵상과 말씀 암송이 중요한 것이다.

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,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(요15:7)

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고, 지혜를 주고, 힘을 주고,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신다(딤후3:6).

②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“들어가지 말라”고 했다(7절)

여기 “들어간다”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“관계에 참여하다”, “섞이다”는 뜻이다.

단순히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의 것과 내 욕심, 상처, 세상의 것을 섞지 마라는 것이다.

내 안에 오랫동안 만들어진 12가지 사단의 시스템이 있다. 그것이 내 생각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.

자기 중심(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라), 육신 중심(영의 것, 위에 것을 사모하라), 성공 중심(세상 기준의 성공 욕심

에 빠져 거기서 교만해지고, 낙심과 절망도 한다). 특히 내 무의식, 잠재의식에 자리 잡고, 내 삶에 습관과 체질이 된 운명, 대물림과 싸우라(영적 문제). 성격, 감정, 질병,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하고, 바꿀 수 있다(엡4:22-24).

3) 이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.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(10절).

망대는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.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고, 나의 파수꾼이 되어준다고 하셨다(사62:6-7)

① 내 안에 세워지는 망대가 시작이다.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(눅17:21)

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망할 수 없다(마16:18-18). 성령이 도우신다(요14:16-18, 롬8:26)

② 내 현장에 세워지는 망대가 본론이다. 내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(마12:28)

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 하는데, 거기에 흑암이 꺾이고, 내 현장의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는 것이다.

③ 전 세계에 세워지는 망대가 결론이다. 모든 민족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(행28:31)

바울이 그렇게도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이다. 우리는 이 시대 로마인 미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?

여기서 다민족 살려야 하고,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야 한다.

결론-우리가 혼란에 빠지고, 낙심 절망에 빠질 많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.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이다(사60:2) 오직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승리하고, 정복하고, 거기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기를 축복한다.